

새로 나온 詩集

수수한 꽃이어

洪潤基 지음

1959년 「현대문학」지 추천을 통해 시단에 나온 중견시인의 제2시집. '난해'와 '민중'으로 상징되는 한국현대시의 흐름에서 한걸음 비켜선, 풍부한 서정성과 분출하는 시적 감흥을 담은 작품 74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운 시의 화폭을 엮어내는 솜씨가 돋보인다.

문학세계사 / A5신 / 116면 / 2000원

江물과 빨랫줄

서지월 지음

「낭만시」동인으로 대구지역에서 활발한 시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지월의 제2시집. 첫시집「꽃이 되었나 별이 되었나」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시인의 각별한 관심이 순응과 조화의 친근한 말투와 가락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문학평론가 김용직은 말미에 붙인 해설에서 그의 시세계를 일러 '맵싸고 단단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사상사 / A5신 / 146면 / 2000원

길찾기

박세현 지음

1983년 계간 「문예중앙」에 「오랑캐꽃을 위하여」를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온 젊은 시인의 제2시집. 세속도시의 부패한 일상적 삶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거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심적 인간의 부끄러움과 절망, 그리고 그같은 자신에 대해 자학에 가까운 풍자를 던지고 있는 작품 6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과학평사 / A5신 / 108면 / 2000원

바보학습

전정자 지음

지난해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단에 나온 이래 간결한 구조와 정직한 언어구사로 일상과 세계의 '뒤집어보기'에 남다른 특징을 발휘해온 여류시인의 첫시집. 연작시 「바보학습」을 비롯해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4부로 묶었는데, 미학적 상상력에 의한 시적 공간의 확대가 돋보인다.

월간문학 출판부 / A5신 / 114면 / 2200원

땅의 뿌리 그 깊은 속

배진성 지음

월간 「문학사상」 신인발굴과 동아일보 신춘문예(1989년)를 통해 시단에 나온 젊은 시인의 첫시집. 고향에서의 유년체험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의 자연세계와 그 속에서의 인간생활을 서정성 짙은 풍경으로 내면화한 80여편의 작품을 묶었다. 평론가 이경호의 해설 「고향에 대한 두가지 시선」을 권말에 붙였다.

민음사 / A5신 / 158면 / 2000원

京義線 보통열차

洪允淑 지음

본업인 시 뿐만 아니라 일련의 수필집들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여류시인의 제9시집. 「略歷」 「望鄉詞」 「어머니」 등의 연작시를 중심으로 한 64편의 시작품을 5부로 나누어 묶고, 시창작과 관련된 시인 자신의 산문 6편도 말미에 덧붙였다. "시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변경의 파수꾼"이란 것이 시인의 말.

문학세계사 / A5신 / 130면 / 2600원

개미의 춤

김윤환 지음

「암흑의 계보」 「늑속 태양」 「백발의 밤」 「갯더미」 등의 시집을 상재하며 30여년간 왕성한 필력을 보여온 중견시인의 제9시집. "착한 마음 고운 꿈 우리끼리 나누며"사는 고향에 시정신의 핵심을 둔 작품들이 대종을 이루며, 노사분규나 최후가스 등 당대의 사회 문제를 우화적으로 처리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인문당 / A5신 / 128면 / 2000원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도종환 지음

「접시꽃 당신」으로 80년대의 시집 베스트셀러 현상을 주도했던 교사시인 도종환이 교단을 떠나면서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 가운데 「교육시」만을 가려뽑아 한데 모았다. "지나온 시절의 잘못 가르친 것들을 부끄러워 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고자 한" 시인의 양심과 노력을 절절하게 그려낸 시 6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제3문학사 / A5신 / 130면 / 2200원

너의 이름 나의 시

박제천 지음

「莊子詩」 「老子詩篇」 등으로 동양정신의 원형탐구라는 독특한 시적 지향을 보여온 박제천의 제7시집. 1987년에 펴낸 「어둠보다 멀리」 이후에 씌어진 작품들을 모았는데, 꽃이나 풀과 같은 화훼류의 '침묵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권말에는 시인 자신이 쓴 산문들을 함께 묶었다.

문학아카데미 / A5신 / 132면 / 2500원

뜸복새는 울지도 않았다

김건일 지음

첫시집 「풀꽃의 연가」에서 대학을 나온 후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농민운동을 한 체험을 절실하게 보여준 바 있던 시인이, 아이들 대학공부를 위해 다시 옮겨온 서울 경동시장 주변의 이야기를 따뜻한 연민의 정서로 읊은 시집. 도시의 일상적 삶 속에 깃든 농촌의 서정을 발견할 수 있다.

青鶴 / A5신 / 122면 / 2000원

당신들 속으로

배문성 지음

월간 「심상」지 신인상(1982년)으로 등단한 젊은 시인의 첫시집. 자기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려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젊은이의 순진성으로 도전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2부는 군대체험을 소재로 한 것들만 따로 모아 이체롭다.

나남 / A5신 / 110면 / 2000원

사랑을 여는 바람

명기환 지음

시력 30여년을 헤아리는 기간 동안 줄곧 고향 목포와 그 주변의 공간에 시적 관심을 집중해 온 시인의 제3시집. 낭만주의자들의 비감어린 탄식의 고향과는 달리 사랑과 우정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서의 '다정한 항구 목포'와 남해안의 섬들을 육자배기 가락처럼 흥겹고 자랑스럽게 노래한 작품 50여편이 실려 있다.

나남 / A5신 / 104면 / 2000원

울림의 空白

박이문 지음

시인으로보다는 「시와 과학」을 펴낸 문예이론가로, 혹은 「현상학과 분석철학」을 저술한 철학자로 더 잘 알려진 박이문교수(美시문스大)의 제4시집. 시인 스스로 고백하듯 "지난 2년동안 형이상학적인 니힐리즘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써 온 몸부림의 흔적"을 비교적 短型的 정제미 속에 담은 작품 90편을 실었다.

민음사 / A5신 / 116면 / 2000원

노란 봉투의 편지

徐恩淑 지음

해체되고 분열된 일상적 삶을 거칠게 묘사하는 작금의 시단 경향에선 오히려 이채로운, 가장 '여류답게' 아름다운 서정시를 써온 서은숙의 제2시집. "들꽃에서는 / 적막한 / 달빛냄새가 / 난다" ("들꽃")에서 보는 것 같은 서정적 감동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탁하여 표현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青鶴 / A5신 / 136면 / 2000원

평화 만들기

김용범 지음

수채화 같이 신선한 언어감각과 번뜩이는 상상력으로 70년대 이후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의 제6시집. '정신의 뼈'만을 남기기 위한 시인의 집요한 노력을 잘 드러낸 「평화에 대한 연구」 연작시를 비롯, 「反問」 「플러」 등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5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아카데미 / A5신 / 116면 / 2500원

나를 꿈처럼 생각하세요

李榮一 지음

릴케를 전공한 교수시인(부산대 독문과)의 첫시집. "정녕 / 우리가 가는 길은 /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 눈과 목소리가 있는 곳" ("세상")을 향한 시인의 열망이 담긴 작품 70여편이 실려 있다. 쉬운 표현 속에서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녹아들어 있어 시정신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시문학사 / A5신 / 118면 / 2000원